부산시, 보행자 안전과 교통체증 해소를 위해 승차 구매점 안전관리 방안 제시

부산시 감사담당관 감사총괄팀
2024.10.29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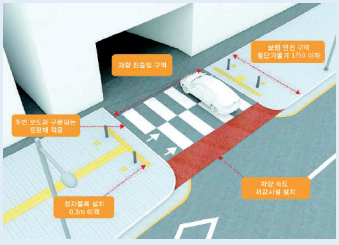
부산시가 승차 구매점 관리기준과 개선 방안 마련을 위해 성과 감사를 실시하고, 그 결과를 10월 발표하였다.

승차 구매점은 흔히 '드라이브스루'라고 불리며, 자동차에 탄 채 햄버거·커피 등을 쇼핑할 수 있는 상점으로 최근 많은 시민이 이용하고 있다. 시에 따르면 부산에는 1992년 한국 최초의 햄버거 승차 구매점이 들어선 이후 그 수가 꾸준히 증가하여 2023년 12월 말 기준으로 78개의 승차 구매점이 영업하고 있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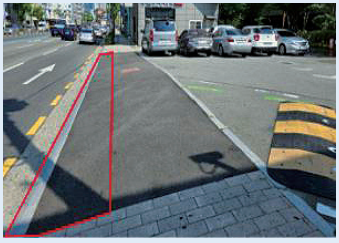
그러나 매장에 진입하는 차량이 보행자 안전을 위협하고 교통 혼잡을 유발하는 등 문제가 발생하고 있어 감사 기간에 다음과 같은 문제점을 확인했다고 설명하였다. 먼저 ▲매장 진출입 차량 이동이 빈번한 승차 구매점 주변에 법령에서 규정한 안전시설(반사경, 경보장치, 과속방지턱 등) 설치가 미흡하고 ▲승차 구매점 진출입로와 통행을 위한 보도 구간 간 구별이 어려우며 ▲나무와 입간판이 운전자의 시야 확보를 방해하는 경우가 있었다. 또한 매장 진입 대기 차량이 주변 도로의 체증을 유발함에도 ▲모든 승차 구매점이 규모 기준상 교통 흐름 변화와 안전도를 조사하는 교통영향평가 대상이 아니며 ▲교통유발부담금 부과 대상 매장도 78개소 중 12개소뿐인 것으로 나타났다.

위원회는 구·군이 승차 구매점에 경보장치 등 안전시설 설치를 명하고 매장 업주가 안전시설을 설치하게끔 설치 의무사항으로 '승차 구매점 조례'를 개정하도록 하였다. 또한 보행자가 매장 진출입로와 보도 구간을 명확히 식별할 수 있도록 올해 새롭게 정비한 '부산광역시 유니버설 디자인 가이드라인'을 준수해 눈에 잘 띄는 색상(붉은색 계열)으로 포장할 수 있게 '승차 구매점 안전관리'를 제시하였다.

또한 교통체증을 유발함에도 규모가 작아 교통영향평가 대상이 되지 못한 승차 구매점에 대해 교통영향평가를 실시하도록 교통영향평가 조례 제정을 시에 권고하였다. 더불어 구·군마다 다르게 적용하고 있는 '교통유발계수'를 시 전역에 동일하게 적용할 것과 교통유발부담금을 적용받는 승차 구매점 대상을 확대하기 위해 교통유발부담금 최소 면적 기준(1,000m²)을 삭제하는 것을 국토교통부에 건의하도록 시에 제시하였다.



부산시 유니버설 디자인 가이드라인 (경사로 포장 설치 예시)



경사구간 색상 시공되지 않은 승차 구매점
출처: 부산시. (2024). 부산시 첫 성과감사 '승차 구매점(드라이브스루) 안전관리', 획기적으로 개선된다. 10월 29일 보도자료.